

제품의 차별화로 승부한다

공발기금 포장디자인 분야 지원 늘려야

통상산업부 지정 산업디자인 공인 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패키지디자인 전문회사는 모두 현재 50개다. 정부가 산업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로 인식하고 육성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이후로 눈에 띄게 디자인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다.

1992년 10월 설립된 퍼비드디자인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실무 디자이너였던 김천씨의 독립에서 비롯되어 현재는 전무 1명을 비롯하여 7명의 디자이너들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일하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퍼비드는 50여평 남짓한 사무실에 관련집기와 서적, 그간 퍼비드가 창조해낸 포장디자인 제품들로 가득 메워 있었다.

또한 김청 사장은 단국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화려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입상을 비롯, 중소기업 우수디자인

포장기술 지도 공업진흥청장상, 제12회 녹색시대 송화양조 포장디자인 대상을 받는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저희 퍼비드디자인은 패키지디자인 파트 4명과 시각디자인파트 3명으로 구분되어 패키지디자인 파트는 말그대로 업체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포장 디자인을, 시각디자인 파트는 주로 회사 심볼마크와 카타로그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그리 많지 않다보니 일이 밀릴때에는 힘들기도 하지만 모두 가족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김 사장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한다. 또한 지금까지 디자인 제작을 하며 무엇보다도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일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제 2년이 조금 넘는 신생기업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위의 평처럼 그간 어느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각 분야 상품의 패키지디자인을 창출해 왔다.

특히 그들이 최근 선보인 한국차 포장디자인은 독특하고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있다. 정우식품의 제품인 오미자차, 시로미차, 당유자차는 다른 과립형 저가의 차와 차별화를 주기위해 주 표현인 일러스트레이션(열매)을 수목 담채화로 처리하여 차의 부드럽고 은은한 맛을 느끼게 했다. 또한 전체 바탕색을 오미자, 시로미, 당유자가 연상되는 채도가 낮은 색상을 각각 사용해 차종류의 구분과 함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으며 제품명을 금박처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지적이면서도 깊이있는 차 맛을 느낄수 있게 표현했다. 이외에도 막걸리, 즉석식품, 양주, 화장품은 퍼비드의 주요 디자인 영역이다.



▲ 8명의 젊은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퍼비드 디자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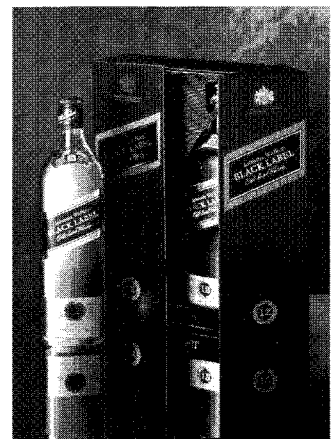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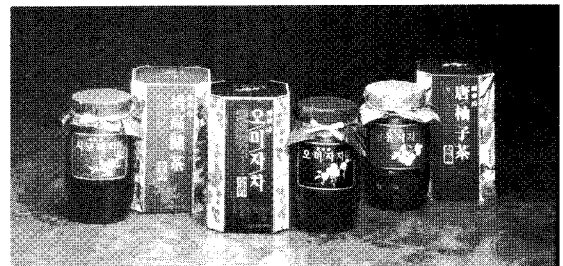
“환경을 중요시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고 우리 패키지디자인 분야도 이에 동참해야 할 시기가 된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게 제품에 나타나는 현상은 없고 다만 저희 회사의 주 거래처가 화장품회사이다 보니 시대적 추세에 따라 리필제품을 선보여야 할 것이며 단순 포장디자인으로 인색을 줄이는 방법들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전환 이겠지요” 라고 피력하는 김 사장은 우리나라 포장디자인이 지난 몇년간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레이아웃 등이 사실상 뒤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외국의 것을 단순 모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이 주어지면 동종상품을 모두 구해놓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컨셉을 설정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일하는 그는 한정된 제품에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작업이라 어려움을 느끼며 촉박한 시간내에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좋은 패키지디자인 제품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회사로 등록되어 공업발전 기금을 활용할수 있었던 것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김사장은 현재 공업발전기금이 포장디자인 업체에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며 정부에서도 제품디자인뿐만 아니라 포장디자인의 중요성도 인식하여 이 분야에 지원을 늘려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천 사장을 비롯, 윤명복 전무 외 7명이 어우러져 있는 퍼비드는 아직 신생기업임이 분명 하지만 시간을 지키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선하기자



▲ 그간 퍼비드가 디자인한 제품들